

울산 공업탑 환경 조명등 설치

황갑신

강원구*

김진환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

Installation of Environmental Lights on the Industrial Tower of Ulsan

G. S. Hwang

W. K. Kang*

J. H. Kim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요약)

전력사업은 설비사업인 만큼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객의 지지기반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전 울산지점에서는 공익사업자로서의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고자 울산 공업탑에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 조명등」을 시설하여 '96. 7. 18 점등식을 갖고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사업 활동을 시도한 후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한전의 사회 기여 인지도가 90%이상」으로 나타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환경 조명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험한 바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전력사업자는 다양한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통한 고객의 지지기반 구축을 확대 하므로서 전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1. 서론

전력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의 고도 정보사회에 있어서도 통신매체의 수단으로 필수 불가결한 재화인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국가 공익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맡고있는 한전은 창사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새로운 전력문화를 창달하므로서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실상 국민에게 비치는

이미지는 독점기업·원자력문제·환경문제·화력발전소의 공해물질 배출문제 등으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쳐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기업(특히 공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적 지지기반을 잃어 중국에는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한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고객 만족사업을 펴고 있는데 울산지점에서는 울산의 상징 조형물인 공업탑에 우리 나라 최초로 환경 조명시설을 설치 1996. 7. 18 점등하여 울산시에 기부 체납한 바가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과 성과에 대하여 기술하고 앞으로 전력사업자의 바람직한 사회사업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추진배경

2.1.1 동기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고 하지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집집마다 한등끄기 운동만 전개하였을 뿐, 밝고 아름다운 환경의 생산적 효과는 간과하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제 시민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는 선진 외국처럼 이러한 환경시설에 투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부의견을 결집하여 시작하였다.

2.1.2 배 경

울산시는 우리 나라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GNP 10%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산업의 중추적 도시이며 인근지역에 2개소의 원자력 발전소와 시내에 2개소의 화력발전소, 그리고 9개의 변전소가 있어, 시민들이 전력시설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도시이다.

시내의 중심부인 남구 신정동에 7천평의 로타리가 있고, 그 한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35년전에 당시 위정자들이 4천년 빈곤을 떨쳐버리고 민족 영성을 이루려 「울산공업센타」를 지정하여 대역사의 삼을 들면서 역사적 큰 출발의 뜻을 담아 공업입국의 상징 조형물로 세운 것이 공업탑이며, 이 탑은 어느덧 울산의 명소 중에서 시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여론조사 결과 30% 점유)받는 명물이 되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워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연간 372건) 유발되는 곳이기도 하여, 이러한 지역 명소에 전국 최초로 환경 조명등을 시설하면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추진하게 되었다.

2.2 목 적

2.2.1 대내적

- 국민에 봉사하는 한전 이미지 고양
- 사회사업을 통한 전력사업의 국민적 지지기반 구축 확대
- 전력 판매 신장
- 하계 수급 불안시 소동에 의한 절전 유도 홍보 효과

2.2.2 대외적

-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업탑 밤 풍경 연출로 도시 환경 개선 및 시민 정서 함양
- 울산시의 대 내·외적 이미지 개선 (공해도시→아름답고 정감 있는 도시)
- 야간 교통소통 원활 도모 및 교통사고 예방
- 시민에게 봉사하는 한전 이미지 부각

2.3 시설 및 점등방법

2.3.1 시 설(램프설치 42개)

- 메탈 할라이드 램프(Metal Halide Lamp) : 21개
- 나트륨 램프(Natrium Lamp) : 21개

2.3.2 점등방법

-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두 가지 연색성을 가진 램프를 격 시간 점등시켜 변화 연출

2.4 성 과

'96. 7. 18 공업탑 환경 조명등을 울산시장·시의회의장 등 내외 귀빈을 모신 가운데 점등하고 약 3개월 후 울산시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동신기획(주)에 의뢰 시민여론 조사를 시행한 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 가. 환경조명등의 시민인지도(97.5%)
- 나. 한전 울산지점에서 환경조명등을 시설하여 울산시에 기증한 사실 인지도(55.1%)
- 다. 환경조명등을 설치한 한전 울산지점의 시민봉사 인지도(86.7%)
- 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된다(95.2%)
 - 실제로 '96년 1-5월에 170건의 사고가 있었으나 '97년 동 기간에는 29건만 발생(83%감소)
- 마. 환경 조명등이 도시환경개선 및 시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80.5%)
- 바. 공업탑 로타리가 전보다 밤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졌다(96.2%)

2.5 전력사업자의 바람직한 사회사업 방향

전력사업은 설비사업인 만큼 고객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고객의 지지기반이 없으면 전력사업은 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연의 업무인 신뢰성 있는 전력공급과 아울러 각종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일단 유발된 민원은 즉각 대처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능력에 맞는 사회사업을 가능하면 많이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국민적 지지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현재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은 아래와 같다.

2.5.1 문화사업

- 환경 조명등 설치 지원
- 문화 예술활동 지원

2.5.2 기술지원 사업

- 고객 구내설비 점검 진단
- 효과적인 전력 부하관리 방안 개발 지원

2.5.3 지역사회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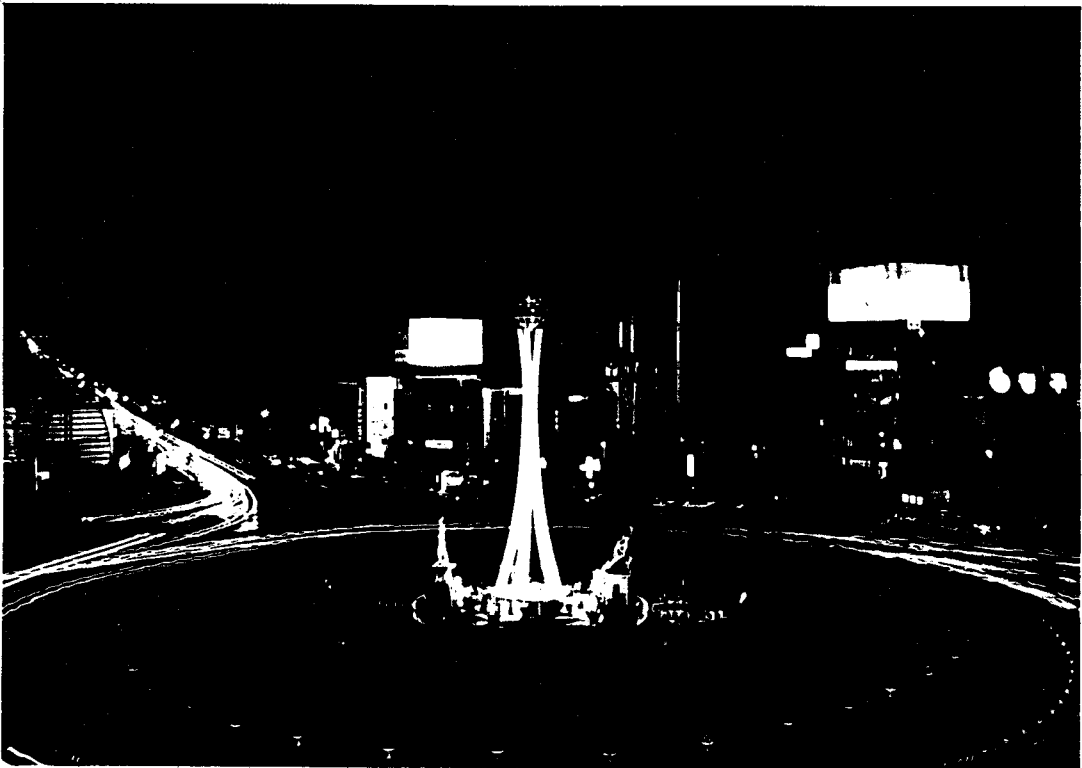
- 보안등 설치 지원
-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사업

2.5.4 지역경제 지원사업

-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양식 치어 생산 분양
- 농어촌 농사용 및 도시의 가로등 전력요금 경감(원가수준)

3. 결 론

한전 울산지점에서 울산 공업탑에 전국 최초로 환경 조명등을 시설, 시청에 기부체납 하므로써 행정기관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은 물론,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긍정적 평가를 받음으로서 당초 목적인 바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번 환경 조명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경험한 바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전력사업자의 사회사업은 능력이 있는 한 많이 개발 시행하여 시민의 지지기반 구축을 확대 하므로써 전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 환경조명 시설된 울산 공업탑 야경 〉